

격주간 '브레일 타임즈' 제697호

등록번호 서울 다-05099

발행일 2012년 10월 10일

발행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겸 편집인 최동익

전화 02-6925-1121 (담당 노상미)

팩스 02-6925-1117

주소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305호

~~~~~

### 목차

포커스: 안마 일자리, 확대 방안은 없을까 / 임경역(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장)  
장애인계 뉴스

1. 흰지팡의 날 맞아 전국 지부에서 기념행사 개최
2. 장애인을 위한 국가대표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총출동
4. 보이스아이코드 사용하는 공공기관 점차 늘어나
5. 대전기상청,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기후변화 안내 오디오북 제작
6. 노원복지관, 한가위 맞아 따뜻한 손길 잇따라

기획: 장애인복지도 지역차별?

독자마당: 여수엑스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며 / 강두선(경상남도 통영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9월 1일~9월 16일]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5): '투잡'과 '소셜 커머스'를 다듬은 말은?

## 포커스

### 안마 일자리, 확대 방안은 없을까

#### 임경역(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장)

‘직업재활’을 장애인 재활의 꽃이라고 하듯, 장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지는 직업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생계를 포함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영위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인의 염원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유일한 직종인 ‘안마’를 통하여 내일을 꿈꿀 수 있었고 그리하여 재활을 할 수 있었으며, 국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회 일꾼으로 자리매김해 왔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의 쇠락과 비장애인들의 안마 유사업종의 불법 확산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이 극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안마시술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참신한 소규모의 안마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안마원 대부분이 소자본에 의한 1인 창업이 많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와 겨우 현상유지로 연명하는 수준으로 유지되는 업소가 대부분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시각장애와 더불어 소자본으로 인해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또 특별한 마케팅 전략도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보니 너무나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헬스키퍼라는 이름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일반 기업체에 계약직으로 고용되고 있다. 작은 출구이기는 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일자리의 숨통을 조금은 터주고 있다.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즉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안마원을 다각도로 활성화하는 것과 기업체에 헬스키퍼의 고용 확대를 도모해 나가는 것이 시각장애인계의 최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안마원 활성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원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안마원 통합 홈페이지의 구축이다. 대부분의 안마원들이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자체 홈페이지를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제작했다 하더라도 내실 있는 홈페이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디자인이나 사진 자료, 다양한 정보의 신속한 업그레이드 작업은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 시각장애인에게는 최대의 취약점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직업육성 발전 기금을 정부나 지자체, 공동모금 등으로부터 지원받아 안마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관리 전담 요원을 두어 안마원의 홍보에 전력을 쏟을 필요가 있다 하겠다.

무료안마시연을 나가 보면 언제나 인기는 대폭발이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집 근처에는 없는지 묻는 이가 많다. 혹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안마원의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둘째는 마케팅 전략의 지원이다. 안마 고객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 하는 마케팅 전략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안마원 전문 컨설턴트를 두어 창업 때부터 원활한 업체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이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는 직무능력개발의 지원이다. 직무라 함은 물론 안마와 고객관리 능력을 뜻한다. 안마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다양한 심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안마사 자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및 소양교육 등도 준비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련 전문도서들도 제작·보급되어야 한

다.

넷째는 기업체 안마 쿠폰 발행제도이다. 기업체 내에 별도로 헬스키퍼실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 내에 안마를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스키퍼를 고용했을 시에 드는 비용만큼 안마 쿠폰을 만들어 인근 지역에 있는 안마원을 이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안마 쿠폰 발행에 드는 일정 비용만큼을 의무고용으로 인정해주는 관련 법규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기존의 안마 바우처제도의 확대이다. 현재 서울의 경우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안마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점점 바우처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바우처 수가를 인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재정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한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면, 현재 기업들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부담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의 일부를 바우처 재정으로 끌어들이는 안이다. 바우처 확대는 시각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직결되므로 전혀 현실성 없는 소리는 아닐 것이다.

다음은 헬스키퍼의 고용 확대 문제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에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무실이 갖춰져 있듯이 헬스키퍼실도 마련돼야 한다. 아니, 별도로 마련되지는 못하더라도 의무실 안에 헬스키퍼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단순한 긴장 완화로서의 안마가 아니라 치료안마로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없다면 만들어야 한다. 재정 지원을 받아서라도 의학 연구진을 통해 안마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헬스키퍼들의 기술 및 자질 향상 도모는 말할 나위 없다.

대선을 앞둔 지금 각 후보들은 경제 살림이 어려운 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공약들을 쏟아놓고 있다. 이때에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참신한 공약을 각 후보들의 핵심 공약 안에 넣을 수는 없을까.

## 장애인계 뉴스

### 1. 흰지팡이의 날 맞아 전국 지부에서 기념행사 개최

10월 15일 제33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우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가 광주지부와 함께 주관하는 전국단위 기념식은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 당일 오전 10시 30분 광주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리며,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선 유공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각 지부별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원도지부: 10월 5일(금) 11시 원주종합운동장
- ▲울산광역시지부: 10월 15일(월) 10시 울산광역시청 신관2층 시민홀
- ▲인천광역시지부: 10월 15일(월) 10시30분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0월 16일(화) 11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 ▲서울특별시지부: 10월 16일(화) 2시 서울숲 야외무대
- ▲충청북도지부: 10월 16일(화) 11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 ▲충청남도지부: 10월 18일(목) 11시 천안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
- ▲부산광역시지부: 10월 18일(목) 11시 구덕실내체육관
- ▲전라북도지부: 10월 18일(목) 11시 전북도립장애인복지관
- ▲대전광역시지부: 10월 19일(금) 11시 서대전시민공원 야외음악당
- ▲경상남도지부: 10월 23일(화) 10시50분 남해공설운동장
- ▲경기도지부: 10월 25일(목) 11시 부천체육관
- ▲전라남도지부: 10월 30일(화) 11시 목포실내체육관
- ▲대구광역시지부: 10월 31일(수) 11시 대구시민운동장 실내체육관
- ▲경북지부: 11월 중 울진엑스포공원 및 울진군 일원

### 2. 장애인을 위한 국가대표 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

지난 9월 24일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담당하던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폐지되고,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김영일)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8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서 장애인용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보급·표준 제정, 각종 도서관 및 유관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서비스 기준·지침 제정 등 의 사업을 수행한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심장섭)은 9월 24일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개관식 및 현판식을 가졌으며 장애인독서한마당,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등 다양한 독서축제 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개관식은 지난 3월 장애인 대상 코칭 프로그램을 맡았던 서혜정 성우가 진행을 맡았으며 현판 제막식, 국립장애인도서관 시설 및 점자책·수화영상도서 등 전시공간 견학 등

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도서관 관계자는 “그동안 250만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설립됨으로써 정부는 도서관을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장애인도서관서비스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런던장애인올림픽 메달리스트 총출동

대한장애인체육회가 10월 8일부터 5일간 고양시를 주 개최지로 하여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는 27개 종목이 치러지며, 16개 시도에서 총 6,99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10월 8일 고양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12일까지 5일간 경기도내 11개 도시에 위치한 32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지난 9월 9일 폐막한 런던장애인올림픽 국가대표들이 총출동하여 세계적인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관람객들에게는 장애인 체육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회 대회 시범종목이었던 당구와 31회 시범종목이었던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이번 대회에서는 정식 25개(골볼, 농구, 보치아 등), 전시 2개(게이트볼, 바둑) 등 총 27개 종목이 치러진다.

한편 개회식은 ‘Heart to Heart(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세상)’라는 주제로 10월 8일 열렸으며, 대회 최초로 운동장 가운데에 선수단 좌석과 관람객 좌석을 함께 배치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어울림 개회식으로 개최되었다.

경기일정과 결과는 대회공식 홈페이지(national.kosad.or.kr)에서, 대회관련 이야기 및 뉴스는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블로그(blog.naver.com/kosad\_blo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 보이스아이코드 사용하는 공공기관 점차 늘어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공공문서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코드(문자 음성전환 프로그램)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공공문서에 의무적으로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9월까지 소프트웨어 보급을 완료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사용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교사는 물론 학교 교직원까지 교육이 완료되면 가정으로 발송되는 인쇄물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든 문서에 의무적으로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하게 된다.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요즘 인기 있는 동화에 보이스아이코드를 삽입한 한 교사는 “시각장애 학생이 남의 도움 없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기쁘다”며, “이번 소프트웨어는 가정통신문 등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활용도가 높고 장애학생의 자립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군포시는 주요 시정안내 및 사업계획서 등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필수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1일 각 부서 대민 행정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아이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군포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 행정서비스 소외계층 감소, 시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재철 군포시청 사회복지과장은 “군포소식지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 및 행정서비스 안내를 위한 각종 문서에 보이스아이 코드를 사용해 시민이면 누구나 편하고 쉽게 시정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이스아이 코드는 적극적 복지이자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과거 보이스아이코드는 전용기기가 있어야 사용이 가능했지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별다른 기기 없이 코드에 입력된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됐다. 보이스아이코드 사용자가 늘면서 이를 공공문서나 간행물에 삽입하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 하겠다.

## 5. 대전기상청, 시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기후변화 안내 오디오북 제작

대전지방기상청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기후변화 홍보를 위한 오디오북 「온실가스 정체를 찾아라!」를 제작하여 올해 10월 중 시각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에 무료로 보급한다.

기상청을 비롯한 국가 기관들은 기후변화가 산업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내용들을 대국민 홍보하고 있으나 인쇄물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가 적었다. 이번 오디오북은 시각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대전지방기상청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시각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정체를 찾아라!」라는 제목의 오디오북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오디오북 「온실가스 정체를 찾아라!」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걱정하지만 기후변화의 원리를 잘 알지 못해 궁금해 하는 주인공 ‘난이’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적받지만 이를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외치는 이산화탄소 ‘코리’, 그리고 우리에게 기상변화, 온실가스 등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가르쳐 줄 기상청 캐릭터 ‘기상이’가 등장한다.

기상은 난이와 코리가 궁금해 하는 기상과 기후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온실가스와 기후변화의 관계,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설명한다. 지구의 사막화, 물 부족,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림으로 인해 사람들이 거주하는 육지 면적의 감소 등 급격한 기후 변화의 피해들이 단순히 이론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곳에 발생하는 실제 현상이라는 것을 알리고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오히려 온난화를 악화시키고 있는 점을 고발하며, 온실가스와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정세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한 가족, 사회 공동체,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실천할 수 있고,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도 제시한다.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게 난이와 코리, 기상이라는 캐릭터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온실가스와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 오디오북 「온실가스 정체를 찾아라!」는 총 500장의 CD와 200개의 USB로 제작되어 보급된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ARS 서비스(2092-9000, 1577-6655)와 시각장애인 사이버방송 센터(www.kbumac.or.kr), SK텔레콤에서 운영 중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도서관 ‘행복을 들려주는 도서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각장애인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6. 노원복지관, 한가위 맞아 따뜻한 손길 잇따라

지난 9월 서울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한정석, 이하 노원복지관)에는 추석을 맞아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노원복지관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벌여온 기업, 공공기관에서 추석을 맞아 저소득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선물을 전해온 것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사과선물 200상자와 50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존슨앤드존슨은 시각장애인가정 80곳에 쌀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임직원들이 직접 배달에 나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

이어 서울메트로는 18가정에 참치선물세트를, 노원구청은 13가정에 배급을 기증했다. 해당물품들은 노원복지관을 통해 저소득 시각장애인가정 및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노원복지관 관계자는 “정성이 담긴 손길로 저소득 시각장애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뜻 깊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기획

### 장애인복지도 지역차별?

지난 9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발표한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 장애인 복지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특히 지난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 다수의 사회 복지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면서 지역별로 편차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국장총의 조사는 크게 장애인 복지와 교육 2개 분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에 따르면 2012년 16개 시도 중 장애인복지 분야는 광주, 대전, 강원, 제주가 장애인교육 분야는 울산, 인천, 충남, 경남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분야의 최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보았을 때 복지 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5.21점, 교육 분야는 72.42점으로 나타났다.

점수에 따라 '우수, 양호, 개선, 미흡' 등 4개 수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장애인 복지 분야의 경우 '우수'지역에는 앞서 말한 광주, 대전, 강원, 제주가, '양호'지역에는 서울, 충북, 충남, 경남이, '개선'지역에는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가장 하위수준인 '미흡'지역에는 부산, 대구, 경기, 경북으로 분석되었다.

지난해 상위권에 속해있던 광주, 대전, 제주가 올해도 역시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우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에 5위를 차지했던 강원이 올해는 '우수'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반면 지난해 전체 2위를 차지하며 '우수' 수준이었던 경남의 경우 올해는 '양호'지역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인 복지수준이 조금 하락했으며, 지난해 7위로 '양호'수준을 기록했던 부산은 올해 상대적인 순위가 많이 내려가 '미흡'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흡'으로 분류된 4개 지역 중 경기, 부산, 경북이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1,3,4위에 해당된다는 점은 안타깝다. 시각장애인이 비교적 복지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복지 예산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2.2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지역별로는 대전이 3.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 3.30%, 충북 2.71%, 대구 2.44%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인천의 경우 1.88%로 가장 낮은 예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강원 1.89%, 전남 1.92%, 경북 1.95%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간의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복지 분야 세부영역을 살펴보면, 장애인고용률 부문에서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2배수 적용)은 2011년 말 현재 평균 2.25%로 나타났다. 인천이 2.96%로 고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광주 2.93%, 부산 2.92%, 제주가 2.87% 순이었다. 반면에 서울 1.97%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대를 기록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남 2.29%, 경기, 충남, 전남이 각 2.28% 순으로 고용률이 낮은 곳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지원액은 충남이 1,126,651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강원(405,524원), 제주(355,839원), 전남(171,347원), 부산(153,198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충북이(66,647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서울(69,754원), 경북(72,820원), 인천(75,716원), 대구(89,291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콜택시 의무달성비율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7.18%(2011년 47.3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286대를 운행하고 있어 의무대수 199대의 143.72%를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인천 85.31%, 서울 76.34%, 충북 62.04%, 전북 60.14% 등의 순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남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의무 보유율이 12.66%(2011년 15.09%)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복지 분야에 이어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장애학생의 교육요건이 '우수'한 수준인 곳은 울산, 인천, 충남, 경남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호' 수준의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전남, '개선'지역은 대구, 강원, 전북, 제주가, '미흡' 수준의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경북이었다. 2011년 장애인 교육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나타난 대전이 2012년 연구에서는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상대적인 수준이 내려갔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올해 '우수' 수준으로 분석된 울산의 경우 2011년 연구에서 5위 수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다른 시도에 비해 교육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3,301,822원으로, 지역별로는 36,175,030원으로 조사된 전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35,710,145원), 광주(30,197,999원) 순이었으며, 예산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18,279,104원)이었으며, 경기도(18,756,459원), 서울(19,599,972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기본으로, 한국장애인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정부기관 41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16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2011년 1.43배에서 올해 1.34배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 간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 장애인의무고용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율 등 장애인복지 관련 법적 기준을 달성하려는 지역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12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연구>, 2012.

## 독자마당

### 여수엑스포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을 떠올리며

#### 강두선(경상남도 통영시)

지난 6월 여수엑스포를 다녀왔어요.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들이를 하고 온 것이죠. 여수엑스포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박람회였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신기술을 주제로 한 대전엑스포였고 이번에 열린 여수엑스포는 해양 바다생태계를 주제로 했습니다. 집자도서관 여름학기학습으로 여수엑스포에 참가했는데, 이런 기회에 참석하지 못하면 혼자서는 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문자를 받고 바로 도서관으로 전화해 참석한다고 하였습니다.

출발하는 날 마산도서관 앞으로 7시40분까지 모이라는 말에 장애인콜을 새벽 6시에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아침 교대시간이 8시라면서 콜 예약을 받지 않더군요. 시청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장애인 콜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기사아저씨의 불평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면서, 교대시간이 8시인데 그 거리까지 갔다 오면 교대시간이 지나는데 누가 일할 기분이 나겠냐고 하시더군요. 제 휴대폰 번호가 기억에 남는 번호라 무슨 급한 일인 줄 알고 오셨다고요. 가는 내내 불평을 들어야했지만 어쨌든 기사아저씨 덕분에 무사히 제시간에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두대의 관광버스에 도우미분들과 장애인대상자들이 탑승을 마치자 여수엑스포를 향해 출발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쪽에서 여수엑스포 관람내용이 프린트된 문서를 나눠주어 도우미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무슨 전시관이 있는지, 그곳의 음식가격과 무슨 음식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입장료도 도서관 쪽에서 부담을 해주었습니다. 도우미와 어머니, 저는 오전 10시 40분쯤 입장을 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는 자유 관람 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목소리 인사만 하던 언니를 아쿠아리움 쪽에서 만나 함께 관람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는 가장 가고 싶었던 아쿠아리움이었습니다. 차레를 기다리는 관람객들 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저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아쿠아리움에 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장애인복지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복지카드를 제시하니 차레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하였습니다.

아쿠아리움으로 들어가니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흰 고래와 바닥이 유리관으로 되어있어 물고기들이 이리저리 헤엄치는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이 들었던 수족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뱀어, 메기, 해파리를 볼 수 있었고 다양한 종류의 닥터피시도 구경했습니다.

바다가 집주변에 있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한자리에서 구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척이나 신비로웠고 마치 바다 속을 관람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구경하고 나서 두 번째 코스인 국제관으로 '고고성~' 향했습니다.

국제관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앙골라 전시실에 들어갔는데 모든 면이 스크린 영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림을 그리면 선물을 준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A4용지를 받아 살이 없고

뼈만 있는 물고기랑 고래잡이배를 손의 감각으로 그렸습니다. 선물로 피즐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스 전시관을 갔습니다. 역시 스크린으로 되어있었고 어머니 말씀으로는 영상 속에 스위스 산맥이 하얀 눈에 덮인 아름답고 눈부신 얼음산이 펼쳐져있고, 그곳에 폭 빠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스위스 날씨가 평균 영하 7,8도라고 하는데 그 기운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소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관람을 하던 영미언니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두선아, 너무 추워. 나가자~”라고 하는 바람에 몇 초 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스위스 기술로 개발한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마셨는데 차가운 냉수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더운 여름이 확 달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스위스 전시관을 나와 마지막으로 독일 전시관을 관람하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박람회장에 왔으니 평소에 먹던 음식이 아닌 특별한 메뉴를 먹어 보자는 생각에 노르웨이 식당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저는 바비큐요리를, 영미언니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우리는 메뉴선택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스파게티는 집에서 만든 것 보다 별로였고 바비큐요리는 고기가 너무 질겨서 씹는 맛이 별로였습니다. 역시 우리 몸에는 익숙한 우리나라 음식이 최고인가 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오후 단체 관람으로 바다를 살리자는 내용의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공연을 하었는데 어찌나 실감나게 연기를 하던지요! 그리고 “바다야! 바다야!”를 관객들이 함께 외칠 때마다 분수대에서 물이 올라왔는데, 분수대 옆에 앉은 저는 갑자기 뿔어져 나온 물벼락에 옷이 다 젖었습니다. 놀라기도 했지만 뜨겁게 데워진 제 몸을 시원하게 적셔주어 기분만은 유쾌했습니다.

뮤지컬 관람을 마치고 전체 집합 장소에 모여 인원 체크를 한 후 마산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집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진주고속도로휴게소에 내려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렸지만 1시간이 넘도록 택시가 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콜센터로 전화를 해 언제쯤 올 수 있는지 물었고 타 지역으로 나가있어서 더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결국 택시를 취소하고 시외버스터미널로 가기 위해 밤에 국도 위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약 35분을 걸어가서야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 통영행 막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막차를 놓치지 않고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여수엑스포를 다 돌아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무척 흥분됐고 한동안 만나지 못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세계의 전시관을 한곳에서 관람을 할 수 있어서, 엑스포 관람객 통계수치에 한명으로 기록될 수 있어서 뿌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비록 도서관과 집을 오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세계를 대표하는 박람회를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억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질 것 같습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 동정 [9월 16일~9월 30일]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9월 16일(일요일)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결정 당선대회에 참석했다.

17일(월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청각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두만드는 풍경’ 행사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했으며, 이어 맹인침사협회 회장단과 면담을 가졌다.

18일(화요일)에는 공공복지전달체계 혁신을 위한 공동학술대회의 주최 및 축사를 맡았으며, 같은 날 한시련 대의원 총회를 주재한 후, 세계장애인대회 관련 보건복지부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날 메디컬투데이 등에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건강보험료 상한선 폐지)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19일(수요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의원 회의에 이어 민주통합당 기독교신우회 예배에 참석한 후, 대전맹학교에서 강의를 진행했으며, 한시련 경북지부 이사회를 주재했다. 이날 서울신문, 뉴시스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자료를 공개한 진료비 과다청구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다.

20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6개시도 복지인권지수 발표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당무위원회에 연이어 참석한 후, 한시련 이사회를 주재했다. 같은 날 장애인복지사업 중앙환원촉구대회의 주최 및 축사를 맡았다. 이날 한국일보 등에는 최동익 의원실에서 공개한 건강보험 불법이용 관련 내용이 게재되었다.

21일(금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모임 ‘민주동행’ 운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으며, 국회 지방재정특위 참고인 진술을 했다.

24일(월요일)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 개관식에서 축사를 했으며, 이날 약사공론 등의 언론매체에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해외채권투자 현황 분석(국민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내용)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25일(화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 워크숍에 참석했으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약업신문 등에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최동익 의원실에서 발표한 농산물 잔류농약 현황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었다.

27일(목요일)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총회 참석에 이어, ‘FTA 확대에 따른 수입식품잔류농약 안전보장 토론회’를 주최하고 축사를 전했으며,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같은 날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8일(금요일)에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위원장단과 면담을 갖는 것으로 9월 일정을 마쳤다.

## 알쏭달쏭한 우리말 바로 알기(165)

### 1) '투잡(two job)'의 순화어: 겹벌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직업을 갖는 일을 뜻하는 '투잡'의 다듬은 말은 '겹벌이'이다. 주 5일 근무제에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까지 맞물려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한 취업 사이트에서 직장인 42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인의 13.2%가 노후를 위해 겹벌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에는 경제적 불안감에서 시작된 생계형 겹벌이보다 좋아하는 일이나 재능을 발휘하고자 겹벌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를테면 낮에는 회사원으로, 저녁에는 가수로 생활하는 겹벌이를 통해 가수의 꿈을 키워가기도 한다.

-예시

- ㄱ. 직장인 김 씨는 낮에는 회사원으로, 밤에는 가수를 하며 겹벌이(투잡)를 하고 있다.
- ㄴ. 직장인 대다수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겹벌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2)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의 순화어: 공동할인구매

소셜 커머스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한 전자 상거래'를 뜻한다. 최근 하루에 한 가지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인 소셜 커머스(공동할인구매)가 인기를 끌고 있다.

공동할인구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설립된 미국의 공동할인구매 업체 '그루폰'이 성공하면서부터다. 이후 국내에서도 공동할인구매 업체가 빠르게 생겨나기 시작했다. 업계에서는 2011년도 공동할인구매 상위 4사의 총 거래액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셜 커머스는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공동할인구매라고 바꿔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시

- ㄱ. 공동할인구매(소셜 커머스)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전자 상거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하는 공동 구매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 ㄴ.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급증과 스마트폰의 보급이 공동할인구매의 발전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홈페이지)/www.malteo.net

~~~~~

▶시각장애 관련 기관, 단체 소식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ARS 02-2092-9000 혹은 1577-6655 주간지란의 KBU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